

아파트 거주자의 근린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eighborhood stress of Residents Living in Apartment

윤재웅* 신혜정** 황보임주***
Yoon, Jae Woong Shin, Hye Jeoung Hwang Bo, Im Jo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better residential plan from the results of apartment residents' various forms of stress caused by their neighborhood.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1) This study finds privacy, noise from children, rules & morality, noise sounds by indoor life, and relationship between neighborhood as 5 main factor of apartment residents' stress. 2)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stress caused by neighborhood have similar results by socio-demographics, housing-related, and social-psychological variables. 3) The problems caused by neighborhood noise is very serious ones of apartment residents. This study also finds that neighborhood who have more than average visit feel more stress

I. 서론

1970년대 이후 가속화된 산업화·도시화는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은 주택의 양적 부족현상을 야기시키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방안의 하나로 대단위 아파트단지 개발이 촉진되었다. 도시지역의 새로운 주거유형으로 등장한 아파트는 토지이용의 효율화와 더불어 현대인의 생활방식과 부합되어 그 선호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지방의 중·소도시로 까지 확산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아파트 개발이 경제성을 우선한 양적 공급에 치중한 나머지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어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주거환경의 질 향상은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주민의 사회적 활동을 촉

진시켜 줄 수 있는 사회적 환경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파트지역의 물리적 환경과 거주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환경, 특히 주민상호간의 분쟁, 프라이버시 침해, 근린소음 등 근린환경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회적 근린환경문제는 주민들의 이웃관계를 멀어지게 하거나 단절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며(강대기, 1982), 가족들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문숙재·곽인숙, 1992). 또한 주거지내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요인은 주거이동의 요인(고경필, 1997)이 되며, 거주자들의 건강과 행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강순주, 1997; 윤복자, 1989). 따라서 본 연구는 주거환경과 관련된 거주자들의 여러 스트레스 요인 중 사회·심리적 측면에서의 근린 스트레스 요인과 수준, 주거환경과의 관계 등을 조사·분석하여 거주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정회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생활환경학과 교수

** 정회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생활환경학과 강사

*** 정회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생활환경학과 석사

본 연구는 1999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연구비지원에 의한 것임

1. 아파트 거주자들의 근린관계 양상과 스트레스의 유형·그 일반적 수준은 어떠한가?
2. 사회인구학적변인에 따라 아파트 거주자의 근린 스트레스는 차이가 있는가?
3. 주거특성변인에 따라 아파트 거주자의 근린 스트레스는 차이가 있는가?
4. 근린관계변인에 따라 아파트 거주자의 근린 스트레스는 차이가 있는가?
5. 근린 스트레스의 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및 표집

본 연구는 대한주택공사와 민간건설업체들이 최근 10여 년에 걸쳐 조성한 대구광역시 월성지구¹⁾의 아파트(대한주택공사 5개, 민간아파트 6개) 단지 거주 주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지의 표집은 임의표집법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총 350부를 배포하여 280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부실 기재된 것을 제외한 총 246부를 유효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2. 조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山内宏太郎, 1995)를 기초로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조사도구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문항(사회인구학적 특성, 주거특성, 근린관계특성)과 근린 스트레스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근린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94이며, 요인별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표 1. 근린 스트레스 문항의 신뢰도

변 인	문 항 수	신뢰도(cronbach' α)
요인 1 : 생활 행위음	11	.90
요인 2 : 규칙·도덕성	6	.87
요인 3 : 프라이버시	6	.89
요인 4 : 어린이 행위음	4	.88
요인 5 : 이웃과의 교제	4	.77

3.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SPSSWIN9.0 Program을 이용하여 척도수준에 따라 빈도 및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요인분석(Factor Analysis), t-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Duncan-test,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용어정의

1) 근린 스트레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생활하면서 겪게되는 이웃과 관련된 여러 분쟁, 심리적인 불편, 피해 의식 등으로 규정하였다.

2) 생활행위음, 어린이행위음

아파트 내에서 생활상 발생하는 내부소음으로, 생활행위음은 급·배수음, 계단의 발자국소리, 악기음 등이며, 어린이행위음은 어린이들이 내는 소리로 우는 소리나 노는 소리 등으로 한정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1) 사회 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주부연령은 40~49세가 36.6%, 39세 이하가 32.1%로 나타났고, 가족생활주기는 마지막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는데 초등교육기가 64.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가족수는 3인이 41.1%, 2인 이하가 37.4%로 조사대상자의 가족주기는 대부분 초등교육기였다.

월평균수입은 100~200만원 미만인 42.7%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직업은 사무직과 전문직이 2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장학력과 주부학력은 대졸이 각각 52.8%, 4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 사회인구학적 관련변인 특성

변인	집 단	f(%)	변인	집 단	f(%)
연령	39세 이하	79(32.1)	가장 직업	판매서비스직	34(13.8)
	40 ~ 49세	90(36.6)		생산직	25(10.2)
	50세 이상	77(31.3)		사무직	52(21.1)
가족생활주기	가정형성기	44(17.9)		전문직	52(21.1)
	초등교육기	158(64.2)		관리직	35(14.2)
	고등교육기	31(12.6)	주 부	10(4.1)	
	축 소 기	13(5.3)	정년/연금생활	24(9.8)	
가족수	2인 이하	92(37.4)	무 직	14(5.7)	
	3인	101(41.1)	가장 학력	중졸이하	15(6.1)
	4인	33(13.4)		고 졸	68(27.6)
	5인 이상	20(8.1)		대졸(전문대)	130(52.8)
월평균수입	100만원미만	37(15.5)	대학원 이상	33(13.4)	
	100~200만원	105(42.7)	주부학력	중졸이하	35(14.2)
	200~300만원	61(24.8)		고 졸	105(42.7)
	300만원이상	43(17.5)		대 졸	106(43.1)
합 계	246(100)	합 계	246(100)		

2) 주거관련 변인 특성

주거특성변인은 자가 79.3%를 차지하고 있었고, 평형은 20평 미만이 45.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아파트의 형식은 계단형이 70.3%였으며, 배치형식은 ‘—’자형이 76.8%, 주동의 높이는 6~15층 이하가 60.2%로 나타났다. 거주년수는 10~19년이 42.3%, 5~9년은 36.2%로 나타났다. 전 거주지역은 도시중심부가 62.2%로 나타났다. 이사희망하는 거주지역은 도시외곽부가 49.6%, 중소도시가 24.0%였다.

표 3. 주거관련변인 특성

변인	집 단	f(%)	변인	집 단	f(%)
소유 형태	자가	195(79.3)	전 거주 지역	도시중심부	153(62.2)
	전세/기타	51(20.7)		도시외곽부	67(27.2)
apt 평형	20평 미만	112(45.5)		중 소 도시	15(6.1)
	20~30평미만	73(29.7)	농 어 촌	11(4.5)	
	30~40평미만	51(20.7)	희망 거주 지역	도시중심부	49(19.9)
40평 이상	10(4.1)	도시외곽부		122(49.6)	
apt 형식	복도형	73(29.7)		중 소 도시	59(24.0)
	계단형	173(70.3)	농 어 촌	16(6.5)	
apt 배치형식	일자형	189(76.8)	전 거주 주택 형태	단독주택	26(10.6)
	—자형	57(23.2)		연립주택	91(37.0)
주동 높이	5층 이하	43(17.5)		5층이하apt	52(21.1)
	6~15층이하	158(60.2)		6~15층 apt	58(23.6)
	16층 이상	55(22.4)	16층이상 apt	19(7.7)	
거주년수	20년 이상	29(11.8)	희망 거주 주택 형태	단독주택	18(7.3)
	19~10년	104(42.3)		전원주택	130(52.8)
	9 ~ 5년	89(36.2)		5층이하 apt	16(6.5)
	4년 이하	24(9.8)		6~15층 apt	47(19.1)
합 계	246(100)	합 계	246(100)		

전 거주 주택형태는 연립주택이 37.0%, 6~15층 아파트가 23.6%였으며, 미래 희망하는 주택형태는 전원주택이 52.8%, 아파트가 39.8%로 나타났는데, 그 중 6~15층 이하의 중·고층아파트를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

3) 근린관련 변인 특성

조상대상자의 근린관련 변인을 정도에 따라 상·중·하 세 집단²⁾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4. 근린관련 변인 특성

변인	집 단	f(%)	변인	집 단	f(%)
이웃과의 친밀도	상집단	140(56.9)	근 름 만족도	상집단	53(21.5)
	중집단	40(16.3)		중집단	171(69.5)
	하집단	66(26.8)		하집단	22(8.9)
	평균값	3.33		평균값	3.16
근 름 생활 참여도	상집단	108(43.9)	단 지 애착심	상집단	90(36.6)
	중집단	49(19.9)		중집단	130(52.8)
	하집단	89(36.2)		하집단	26(10.6)
	평균값	2.97		평균값	3.35
합 계	246(100.0)	합 계	246(100.0)		

전체적으로 평균값이 3점 이상으로 근린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웃과의 친밀도는 상 집단이 56.9%로 평균값은 3.33이며, 근린 만족도는 중 집단이 69.5%를 차지하고 있고, 평균값은 3.16이다. 근린 생활 참여도는 상 집단이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하 집단 또한 36.2%로 평균값은 2.97보다 약간 낮은 경향을 보인다.

단지애착심은 중 집단이 52.8%로 가장 높으나 하 집단의 빈도가 낮아 평균값은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근린관계 양상과 근린 스트레스의 요인 분류 및 일반적 경향

1) 근린 관계 양상

(1) 이웃 범위의 정도

이웃의 범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같은 동과 층에 인접해 있는 경우가 66.7%로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엘리베이터

표 5. 이웃의 범위

이웃의 범위	f	%
같은동,출. 층과 같이 인접해 있는 경우	164	66.7
자녀들로 인해 알게 된 집	25	10.2
동창이나 선후배의 집	5	2.0
같은 종교로 인해 알게된 집	33	13.4
같은 모임이나 취미생활로 알게 된 집	12	4.9
직장이 같아서 알게 된 집	4	1.6
남편을 통해 알게 된 집	3	1.2
합 계	246	100.0

나 계단 등 접근로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로 근린 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근접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는 Whyte(1956)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 외 같은 종교로 알게된 경우가 13.4%, 자녀들로 인해 알게 된 경우 10.2% 순으로 나타났다.

(2) 이웃과 만나는 장소

이웃과 주로 만나는 장소는 집안과 집 앞 현관이나 계단이 30.9%로 가장 높았고, 엘리베이터 안이나 밖이 15.4%로 나타났다.

표 6. 이웃과 만나는 장소

이웃과 만나는 장소	f	%
집안	76	30.9
집 앞 현관이나 계단	76	30.9
1층 출입구	23	9.3
엘리베이터 안이나 밖(앞)	38	15.4
아파트 안의 공간이나 벤치	15	6.1
놀이터, 주차장	4	1.6
단지 안의 슈퍼나 상가	14	5.7
합 계	246	100.0

(3) 주민간의 문제 발생 시 해결방법

이웃 주민과 생활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이웃과의 문제 해결방법

이웃과 문제 해결방법	f	%
참고 이해한다.	66	26.8
친한 친구에게 얘기한다.	25	10.2
관리실이나 반상회에 이야기한다.	105	42.7
파출소에 신고한다.	2	0.8
문제를 일으킨 상대와 직접 해결한다.	48	19.5
합 계	246	100.0

‘관리실이나 반상회에 이야기한다’가 42.7%, ‘참고 이해한다’가 26.8%, ‘문제를 일으킨 상대와 직접 해결한다’ 19.5%, 그 외 ‘파출소에 신고한다’는 의견은 0.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 근린 스트레스의 유형

조사대상자가 경험하는 근린 스트레스는 어떠한 요인으로 구성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31개 문항에 대해 5점 Likert 척도로 질문을 한 결과를 가지고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표 2에서와 같이 eigen값이 1.00이상인 5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 요인들은 전체 변량의 61.98%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분석 결과 근린 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설명하는 요인1의 속성은 아파트 각 주거의 위·아래·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 즉 「청소기, 세탁기, 전화, 이야기소리」, 「부엌, 화장실, 욕실 등의 급·배수소음」, 책상, 문의 개폐음, 「계단, 복도의 발자국 소리」 등에 관한 문항으로 ‘생활행위음’이라 명명하였으며, 전체 근린 스트레스의 34.66%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2는 「아파트 시설물을 파손하는 사람이 있다」, 「아파트내의 규칙을 지키지 않음」,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내에서 침을 뱉거나 담배, 휴지를 버린다」, 「주차문제 불편」 등 공동으로 생활하는 아파트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과 거주자의 도덕성에 관련된 문항으로 ‘규칙·도덕성’이라 명명하였으며 전체변량의 11.76%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3은 「내 집안 일에 다른 사람들이 간섭하거나 이야기 화제로 삼는다.」, 「다른 사람의 집안이 들여야 보인다.」, 「내 집 방안이 밖에서 보인다」 등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로 ‘프라이버시’라 명명하였으며 전체 근린스트레스의 6.45%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4는 아파트 단지 내·외부에서 아이들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 즉 「아이들의 말, 고함, 우는 소리, 뛰어 다니는 소리」에 관한 문항으로 ‘어린이 행위음’이라 명명하였으며 전체변량의 4.81%를 설명하고 있다.

표 8. 요인분석

요인	문항내용	요인적재치	아이겐값	분산백분율(%)	누적백분율(%)
생활행위유형	(위·아래·옆집에서) 청소기 소리가 들린다	.81	10.75	34.66	34.66
	(위·아래·옆집에서) 세탁기 소리가 들린다	.75			
	(위·아래·옆집에서) 전화·이야기 소리들림	.70			
	(위·아래·옆집에서) 부엌, 목욕탕, 화장실의 급배수 소리가 들린다	.67			
	(위·아래·옆집에서) 책상의자움작임소리들림	.66			
	(위·아래·옆집에서) 현관방문 여닫는소리들림	.65			
	(위·아래·옆집에서) 싸움,아닌아닌소리들림	.62			
	(위·아래·옆집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릴때	.60			
	(위·아래·옆집에서) 파는음료판매소리들림	.58			
	(위·아래·옆집에서) TV라디오 전축소리들림	.58			
(위·아래·옆집에서)애원동물짖는소리들림	.55				
규칙·도덕성	아파트시설물 파손하는 사람이 있다	.76	3.65	11.76	46.42
	아파트내규칙 지키지않는 사람이있음	.76			
	(복도·계단·엘리베이터내) 침,담배, 휴지 버리는 사람있음	.74			
	아파트내규칙 지키지않는 사람이있음	.66			
	아파트내규칙 지키지않는 사람이있음	.63			
프라이버시	내집안일에 대해 이웃사람들이 간섭한다	.84	2.00	6.45	52.87
	내 집안일에 대해 이웃사람들이 이야기힘	.78			
	다른 사람의 집안이 들여다 보인다	.64			
	내 집 방안이 밖에서 들여다 보인다	.59			
	내 집 현관앞에 서서 시끄럽게 이야기힘	.58			
내 집 현관앞에 물건 넣어두거나 대립한다	.56				
어린이행위유형	(위·아래·옆집에서) 어린이의 말·고함소리나 우는 소리가 들린다	.81	1.49	4.81	57.68
	(아파트 동주변에서) 어린이의 말·고함소리나 우는 소리가 들린다	.77			
	(위·아래·옆집에서) 어린이가 뛰어 다니는 소리가 들린다	.71			
	(계단에서) 어린이 뛰어 다니는 소리가 들린다	.62			
	(아파트 동주변에서) 어린이가 뛰어 다니는 소리가 들린다	.62			
이웃과의교제	취미활동, 운동을 권유받은 적이 있다	.78	1.33	4.30	61.98
	이웃집 배달물,우편물을 대신 받아주는 경우	.74			
	반상회·부녀회에 참석해야 할 때	.69			
	이웃이 함께 외출(쇼핑·시장)하자고 할때	.68			
	이웃이 함께 외출(쇼핑·시장)하자고 할때	.68			

요인 5는 「이웃에게서 취미활동, 운동을 권유 받은 적이 있다」, 「이웃집 배달물, 우편물을 대신 받아주는 경우」 등 이웃과의 교제 시 일어나는 문제에 관한 문항으로 '이웃과의 교제'라 명명하였으며 전체변량의 4.30%를 설명하고 있다

3) 근린 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

조사대상자가 경험하는 근린 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을 살펴보고, 아

파트 크기에 따른 스트레스 인지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표 9와 같다.

표 9. 근린스트레스의 인지수준과 평형별 차이비교

요인	근린 스트레스 인자	M	20평미만	20평이상	t값	
규칙·도덕성	(복도·계단·엘리베이터내) 침,담배, 휴지 버리는 사람있음	4.26	4.20	4.31	0.98	
	주변의 도로에 방호하는 사람이 있다	4.13	4.04	4.20	1.11	
	아파트 시설물을 파손하는 사람이 있다	4.16	3.95	4.23	2.33*	
	주차문제(주차방향, 주차위반)로 인해 불편	3.95	3.90	4.00	0.78	
	아이들이 우편함에 장난치는 경우가 있다	3.87	3.88	3.87	0.07	
	아파트내 규칙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	3.72	3.55	3.87	2.52**	
	평균		4.01			
	프라이버시	내 집안일에 대해 이웃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다님	3.97	3.87	4.06	1.25
		내 집안일에 대해 이웃 사람들이 간섭한다	3.96	3.90	4.00	0.66
		내 집 방안이 밖에서 들여다 보인다	3.88	3.82	3.93	0.71
다른 사람의 집안이 들여다 보인다		3.74	3.78	3.72	0.41	
내 집 현관앞에 물건을 넣어두거나 대립한다		3.65	3.68	3.70	0.16	
내 집 현관앞에 서서 시끄럽게 이야기한다	3.55	3.64	3.55	0.70		
평균		3.81				
어린이행위유형	(위·아래·옆집에서) 어린이가 뛰어 다니는 소리들림	3.41	3.46	3.37	0.68	
	(계단에서)어린이가 뛰어 다니는 소리가 들린다	3.34	3.45	3.25	1.36	
	(위·아래·옆집에서) 어린이의 말·고함소리나 우는 소리	3.33	3.58	3.19	1.94*	
	(아파트 동주변에서) 어린이가 말·고함소리, 우는 소리	3.25	3.46	3.15	2.17*	
	평균		3.34			
생활행위유형	(위·아래·옆집에서) 애원동물 짖는소리가 들림	3.24	3.29	3.20	0.69	
	(위·아래·옆집에서) 싸우는소리·아닌아닌소리들림	3.23	3.42	3.07	2.11*	
	(위·아래·옆집에서) 부엌, 목욕탕, 화장실 급배수 소리	2.85	3.03	2.77	1.88	
	(위·아래·옆집에서) 파는음료판매소리들림	2.87	2.92	2.82	0.52	
	(위·아래·옆집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릴 때	2.80	2.74	2.84	0.72	
	(위·아래·옆집에서) 책상의자움작는소리들림	2.76	2.65	2.86	1.32	
	(위·아래·옆집에서) 현관문, 방문 여닫는 소리들림	2.76	2.88	2.65	1.71	
	(위·아래·옆집에서) TV, 라디오, 전축소리들림	2.65	2.82	2.58	1.66	
	(위·아래·옆집에서) 세탁기 소리가 들린다	2.62	2.69	2.56	0.92	
	(위·아래·옆집에서) 전화·이야기소리가 들림	2.48	2.48	2.49	0.02	
(위·아래·옆집에서) 청소기 소리가 들린다	2.46	2.55	2.39	1.20		
평균		2.80				
이웃과의교제	반상회·부녀회에 참석해야 할 때	2.62	2.81	2.47	2.60**	
	이웃이 함께 외출(쇼핑·시장)하자고 불러낸다	2.48	2.59	2.40	1.54	
	이웃집 배달물,우편물 대신 받아주어야 하는 경우	2.31	2.38	2.19	2.17*	
	취미활동, 운동을 권유받은 적이 있다	2.30	2.46	2.23	1.24	
평균		2.43				
전체 평균		3.28				

거주자가 경험하는 전체 스트레스는 평균값이 3.27로 전반적 근린 스트레스는 중간 이상의 수준이라 볼 수 있고, 각 스트레스 수준은 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다.

근린 스트레스 요인 중 「규칙·도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프라이버시」, 「어린이 행위음」, 「생활행위음」, 「이웃과의 교제」 순으로 나타났다.

규칙·도덕성이 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실시된 여러 공동생활에서의 규칙·쓰레기, 음식물 분리수거와, 현대사회에서 공동생활에서 규칙, 도덕성에 대한 의식이 증대됨으로써,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화된 결과라 볼 수 있다.

또, 중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에 침을 뱉거나, 담배, 휴지 등을 버리는 사람이 있을 경우가 4.26으로 스트레스 정도가 가장 높았는데, 손세욱·최찬환(1991)의 연구에서 여러 주거가 일체적으로 계획된 집합주거에서는 어떤 형태론든 주거와 주거 사이의 근접성은 피할 수 없어 거주자들은 주거 내부에서 외부로의 생활을 확대하고, 그 결과 주거 주위의 공용공간을 점차 자신들의 장소로 인식, 친숙해짐으로써 복도, 계단, 주동 주위의 실외공간 및 단지를 자신들의 영역으로 여기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소유의식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프라이버시는 3.81로 높게 나타났는데 조사대상자의 특성 상 20평 미만인 가장 높게 나타나 복도식 일 경우 창문으로 방안이 들여다 보인다거나, 앞 베란다가 없어서 문을 열어 놓을 경우 안이 들여다보인다 등의 문제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린이행위음은 3.34로 아파트 단지 내·외부에서 어린이가 내는 소리는 아파트 생활에서 신경이 쓰이면서도 생활상 피할 수 없는 문제로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소음의 심각성은 선행연구에서 입증된 바가 있다(박남희·윤복자:1998).

생활행위음은 2.80로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고 있으나 애완동물 짓는 소리, 싸우고 야단치는 소리는 3.24, 3.23등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공동생활에서 집안 내부에서 외부로 흘러나가는 소음에 대해 관심을 갖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웃과의 교제는 2.43으로 낮게 나타나 이웃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규모별³⁾,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한 결과, 4개의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규칙·도덕성」에서는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20평 미만보다 20평 이상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 행위음」, 「생활행위음」, 「이웃과의 교제」에서는 20평 미만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파트 동 내·외부의 어린이 고탈소리, 위, 아래, 옆집의 싸우는 소리, 야단치는 소리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는 조사대상지역의 20평 미만 아파트가 주택공사 아파트로서 시설이 노후화 되고, 대부분 복도형으로 방음시설이 미비하며, 거주자들의 가족주기가 초등교육기로서 어린 자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3. 관련변인에 따른 근린스트레스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근린 스트레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근린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주부연령과 학력,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어린이 행위음에서 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39세 이하에서는 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하고 있는 반면 40-49세 미만은 낮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못하며, 새로운 환경에의 부적응, 자녀출산, 양육 등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거주만족도가 낮고 근린 스트레스 또한 더 많이 인지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주부학력은

표 10.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스트레스

독립변인	생 활 행 위 음		이웃과 의 교 제		어 린 이 행 위 음		규 칙 도 덕 성		프 라이 버 시		
	M	SD	M	SD	M	SD	M	SD	M	SD	
주 부 연 령	39세 이하	2.8	.77	2.56	.78	3.51	.94 ^a	3.96	.85	3.92	.88
	40-49세	2.6	.83	2.35	.75	3.19	1.0 ^b	4.10	.74	3.77	.87
	50세 이상	2.9	.81	2.39	.75	3.34	.92	3.95	.80	3.73	.98
F-value	1.77		1.79		2.32*		1.01		1.04		
주 부 학 령	중졸	2.8	.87	2.48	.91	3.04	1.1 ^b	3.82	.91	3.61	.96
	고졸	2.8	.80	2.34	.72	3.43	.97 ^a	3.98	.90	3.77	1.01
	대졸이상	2.7	.81	2.51	.75	3.35	.90 ^{ab}	4.10	.63	3.91	.77
	F-value	.01		1.35		2.26*		1.73		1.57	
가 족 생 활 주 기	가정형성	2.9	.83	2.58	.72	3.56	1.0 ^{ab}	4.00	.88	3.84	1.06
	초등교육	2.8	.79	2.43	.75	3.30	.92 ^{ab}	4.03	.75	3.83	.85
	고등교육	2.5	.83	2.29	.92	3.08	.93 ^b	3.98	.82	3.74	.87
	축 소 기	2.6	.80	2.23	.63	3.67	1.1 ^a	3.85	1.05	3.50	1.16
F-value	1.68		1.22		2.15*		.21		.62		
가 족 수	2인 이하	2.9	.76	2.64	.74 ^a	3.52	1.0 ^a	3.98	.87	3.86	.95
	3인	2.7	.83	2.37	.79 ^{ab}	3.31	.96 ^{ab}	4.02	.76	3.85	.91
	4인	2.6	.81	2.19	.61 ^b	2.96	.89 ^b	3.89	.81	3.54	.90
	5인 이상	2.5	.78	2.13	.70 ^b	3.26	.78 ^{ab}	4.24	.55	3.78	.70
	F-value	2.40		5.02**		2.96*		.86		1.16	
월 평 균 수 일	100만원	2.7	.86	2.42	.77	3.37	1.18	3.72	1.1 ^b	3.69	1.13
	100-200	2.8	.81	2.42	.81	3.39	.87	3.96	.74 ^{ab}	3.71	.93
	200-300	2.9	.74	2.45	.68	3.37	1.07	4.20	.74 ^a	3.96	.80
	300만원	2.6	.86	2.45	.76	3.16	.83	4.07	.55 ^{ab}	3.93	.77
	F-value	.77		.03		.64		3.10*		1.47	
가 장 직 업	판매서비스	2.7	.84	2.33	.81	3.21	1.07	4.01	.87	3.80	.98
	생산직	2.6	1.0	2.20	.81	3.50	1.13	3.89	1.08	3.67	1.18
	사무직	2.7	.68	2.40	.67	3.58	.89	4.00	.71	3.80	.77
	전문직	2.9	.82	2.67	.84	3.27	.84	4.18	.53	4.03	.65
	관리직	2.8	.83	2.47	.67	3.17	.94	4.01	.64	3.77	.76
	주부	2.8	.54	2.48	.71	3.83	.83	4.12	.69	4.18	.84
	정년/연금 무직	2.8	.77	2.37	.78	3.19	1.05	3.81	1.08	3.44	1.37
F-value	.47		1.28		1.45		.79		1.41		

- * < .05 ** p < .01 *** p < .001
- D : Duncan-test결과 a, b 다른 문자 사이에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중졸보다 고졸 이상이, 가족생활주기는 축소기의 가족이 고등교육기에 있는 가족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수는 이웃과의 교제와 어린이행위음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2인 이하일 경우 4인 이상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인 이하인 경우는 주로 가정형성기로서 주부의 연령도 낮고 이웃과 교제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로 생활이 안정되지 못한 상태이거나, 축소기로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이며, 주부연령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4인 이상으로 가정이 안정될 수록 낮은 스트레스경험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직업에 따라서는 어린이행위음과 프라이버시 측면에 차이를 보이는데, 주부가 가장일 경우 즉, 편모가정이나 독신일 경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반면 정년퇴임이나 연금생활자의 경우는 낮은 스트레스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주거특성 변인에 따른 근린 스트레스

조사대상자의 주거특성변인에 따른 근린 스트레스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아파트 소유형태에 따른 근린스트레스는 이웃과의 교제와 어린이 행위음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전세·월세·임대 등 자가 아닌 경우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아파트 평형에 따른 근린 스트레스는 생활행위음과 어린이 행위음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40평 이하에서 스트레스가 높고, 40평 이상의 집단은 현저하게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평수가 커질수록 방음효과가 크고, 어린이들을 가진 이웃이 줄어들기 때문이라 보여지며, 평수가 적은 아파트는 방음, 소음, 이웃과의 친밀도, 프라이버시 요소에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양준우,1992)와 일치한다.

아파트 형식은 복도형일 경우 생활행위음과 이웃과의 교제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주동 배치형식은 규칙·도덕성 측면에서 '—'자형이 'ㄱ'자형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거주년수와 전 거주지역은 이웃과의 교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사온 지 20년 이상이 되었을 경우 이웃과의 교제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고, 1년 미만인 경우는 이웃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교제를 시작하며 적응하는 단계이므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희망 거주지역이 농어촌인 집단이 생활행위음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었고, 도

시중심부로 이사가고 싶다는 집단은 가장 낮게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표 11. 주거특성변인에 따른 근린 스트레스

독립변인	종속변인		생활행위		이웃과의교제		어린이행위		규칙도덕성		프라이버시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소유형태	자가	2.75	.84	2.38	.76	3.26	.95	4.01	.81	3.8	.93		
	월세/기타	2.97	.64	2.62	.74	3.66	.96	4.01	.73	3.9	.82		
	t-value		-1.68		-2.04*		-2.70**		-.01		-.91		
아파트형	20평미만	2.86	.76	2.56	.81	3.46	.96	3.92	.88	3.8	.92		
	20~30평	2.89	.74	2.30	.66	3.37	.96	4.09	.78	3.8	.93		
	30~40평	2.64	.90	2.33	.77	3.18	.89	4.13	.59	3.8	.88		
	40평이상	2.22	1.0	2.45	.73	2.63	1.1	3.70	.79	3.7	.92		
	F-value		3.03*		2.16		3.01*		1.71		.09		
아파트형식	복도형	2.95	.65	2.68	.77	3.50	.86	4.02	.68	3.8	.79		
	계단형	2.74	.86	2.33	.73	3.28	1.0	4.00	.84	3.8	.96		
	t-value		2.14*		3.39***		1.64		.24		.39		
아파트치	일자형	2.78	.80	2.42	.74	3.37	.97	4.07	.75	3.8	.91		
	7자형	2.85	.85	2.47	.83	3.24	.94	3.79	.91	3.8	.92		
	t-value		-.54		-.50		.93		2.39*		.46		
주공높이	5층 이하	2.68	.83	2.37	.78	3.42	1.0	3.86	.99	4.0	.87		
	5~15층	2.85	.80	2.40	.75	3.29	.96	3.99	.77	3.7	.89		
	16층이상	2.75	.82	2.55	.77	3.42	.95	4.15	.69	3.9	.96		
	F-value		.75		.92		.55		1.70		2.32		
거주년수	20년이상	2.83	.77	2.2	.67	3.35	1.0	3.97	.93	3.9	.93		
	10~19년	2.80	.81	2.3	.78	3.37	.98	4.04	.76	3.7	.91		
	5~9년	2.81	.83	2.59	.72	3.36	.97	4.00	.82	4.0	.87		
	1년 미만	2.71	.76	2.6	.83	3.16	.88	3.92	.73	3.6	.99		
	F-value		.13		2.87*		.37		.15		1.65		
전거주지역	도시중심부	2.83	.81	2.44	.76	3.35	.97	4.00	.85	3.8	.93		
	도시외곽부	2.66	.81	2.31	.72	3.29	.93	4.03	.68	3.8	.89		
	중소도시	3.02	.75	2.93	.78	3.27	1.0	4.01	.46	4.0	.72		
	농어촌	2.92	.72	2.25	.73	3.73	1.1	3.92	1.1	3.7	1.1		
	F-value		1.19		3.01*		.69		.06		.19		
희망거주지역	도시중심부	2.62	.82	2.32	.75	3.25	1.0	3.70	.96	3.6	1.1		
	도시외곽부	2.80	.87	2.40	.79	3.33	1.0	4.09	.79	3.9	.90		
	중소도시	2.86	.70	2.59	.72	3.30	.88	4.05	.58	3.8	.82		
	농어촌	3.13	.60	2.42	.71	3.86	.58	4.10	.84	3.9	.80		
	F-value		1.77		1.22		1.75		3.03*		.89		

- * $p < .05$ ** $p < .01$ *** $p < .001$
- D : Duncan-test결과 a, b 다른 문자 사이에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3) 근린관련 변인에 따른 근린 스트레스

조사대상자의 근린관련 변인에 따른 근린 스트레스의 결과는 표 12와 같다.

근린생활 참여도에 따른 근린 스트레스는 이웃과의 교제, 규칙·도덕성,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상·중·하 집단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근린생활 참여도가 낮은 집단에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근린생활 참여도는 반사회, 부녀회 등의 모임에 참여하는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참여도가 낮을수록 이웃과의 규칙·도덕적인 문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웃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수록 근린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강순주, 조성명(1997)의 연구와 차성란(1985)의 이웃관계의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웃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 결과를 단순한 경향으로 보기보다는 근린 생활의 참여도가 낮을수록 이웃과의 교제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므로 반사회, 부녀회 등의 참여빈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겠다.

표 12. 근린관련변인 특성에 따른 근린 스트레스

독립변인	종속변인		생활행위		이웃과의교제		어린이행위		규칙도덕성		프라이버시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이웃과의친밀도	상집단	2.83	.75	2.42	.75	3.37	.90	4.04	.74	3.85	.78		
	중집단	2.84	.84	2.47	.83	3.43	.94	4.05	.73	3.87	.89		
	하집단	2.72	.90	2.43	.76	3.23	1.1	3.91	.94	3.67	1.1		
	F-value		.47		.07		.68		.63		1.02		
근린생활참여도	상집단	2.70	.82	2.23	.73	3.24	1.0	4.00	.89	3.71	.90	b	
	중집단	2.94	.82	2.38	.75	3.38	.85	3.77	.87	3.63	1.0	b	
	하집단	2.83	.78	2.70	.73	3.44	.95	4.14	.58	4.02	.82	a	
	F-value		1.62		10.67***		1.11		3.60*		3.98*		
근린만족도	상집단	2.74	.89	2.39	.84	3.29	.95	3.96	.91	3.70	.95		
	중집단	2.85	.78	2.43	.73	3.36	.93	4.01	.75	3.81	.89		
	하집단	2.55	.77	2.51	.83	3.34	1.2	4.06	.84	4.00	1.0		
	F-value		1.49		.21		.11		.15		.88		
단지애착심	상집단	2.87	.89	2.46	.75	3.43	1.0	4.21	.73	3.95	.91	a	
	중집단	2.77	.75	2.42	.74	3.28	.88	3.90	.81	3.76	.83	ab	
	하집단	2.68	.79	2.40	.90	3.34	1.0	3.85	.85	3.53	1.1	b	
	F-value		.69		.08		.56		4.76**		2.50*		

- * $p < .05$ ** $p < .01$ *** $p < .001$
- D : Duncan-test결과 a, b 다른 문자 사이에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단지애착심은 규칙·도덕성과 프라이버시에 따라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보이는데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애착심이 높을수록 규칙·도덕적인 문제 즉,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에 침 뱉기, 담배, 휴지 버리는 것, 주변도로에 노상 방뇨, 아파트 시설물 파손, 주차문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4. 근린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

근린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중회귀분석(stepwise방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우선 변수간에 다중공선성(multicolinearty)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모든 변수간에 1차로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 .80이상으로 다중공선성상에 문제가 되는 자녀수와 가족생활주기 변인을 제외시켰으며 2차적으로 VIF를 산출한 결과 다중공선성상에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각 근린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하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활행위음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가족수($\beta = -.160$)로써 가족수가 적을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형성기와 축소기의 가정생활에서 오는 불안정과 심리적인 영향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웃과의 교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근린생활참여도($\beta = .227$), 가족수($\beta = .16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린생활 참여도가 낮고, 가족수가 작을수록 이웃과의 교제 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행위음은 아파트 평형($\beta = .171$)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평형이 작을수록, 아파트 동 내·외부의 어린이의 말, 고함소리, 노는 소리 등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4. 근린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중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생활 행위음 B (β)	이웃과 의교제 B (β)	어린이 행위음 B (β)	규 칙 도덕성 B (β)	프라이 버 시 B (β)
가 족 수	-.142 (-.160)**	-.177 (-.212)***			
수 입				.119 (.141)*	
apt 평형			-.185 (-.171)**		
근린생활 참 여 도		-.121 (-.227)***			-.108 (-.168)**
단 지 애 착 심				.156 (.064)**	.195 (.167)**
constant	3.071	3.130	3.680	3.191	3.470
R ²	2.6	10.6	2.9	4.7	4.9
F-value	6.45**	14.38***	7.39**	5.95**	6.31**
D-W	1.529	1.815	1.706	1.807	2.113

- D-W: Durbin-Watson
- * < .05 ** p < .01 *** p < .001

규칙·도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수입($\beta = .141$), 단지애착심($\beta = .06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입과 단지애착심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입이 높을수록 자가의 비율이 높고, 내 집이라는 의식이 강해지므로 단지애착심이 높아져, 결국 규칙·도덕성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보여진다.

프라이버시는 근린생활참여도($\beta = .168$)와 단지애착심($\beta = .167$)이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근린생활의 참여도가 낮을수록, 단지애착심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아파트 거주자의 근린 스트레스를 요인분석한 결과 생활행위음, 이웃과의 교제, 어린이행위음, 규칙·도덕성, 프라이버시의 5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2) 아파트 거주자의 전반적인 근린 스트레스는 평균 3.28로, 「규칙·도덕성」 측면이 근린 스트레스 중 가장 높게 인지하는 요인이었으며, 다음으로 「프라이버시」, 「어린이행위음」, 「생활행위음」, 「이웃과의 교제」 순으로 나타났다.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내에 침뱉기, 담배·휴지 버리는 사람, 주변도로에 노상방뇨, 시설물 파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 아파트생활에서 이웃 간의 질서외식과 공동생활외식이 높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사회인구학적변인에 따른 스트레스는 주부 연령과 학력, 가족생활주기, 가족수, 소득, 가장직업 변인이 근린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주부연령이 낮고, 학력이 고졸일 경우, 축소기로 가족수가 작고 주부가 가장일 경우, 어린이 행위음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족수가 2인 이하의 경우 이웃과의 교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주부가 가장인 경우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4) 주거관련변인에 따른 스트레스는 아파트 소유형태, 평형, 아파트 형식, 배치형식, 주동높이, 거주년수, 전 거주지역, 희망 주택형태에 따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복도형, 아파트 평형이 작을수록, 희망하는 거주지역이 도시중심부보다 농어촌인 경우 생활행위음에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이웃과의 교제에서는 전세·월세·임대 등의 소유형태와 복도형이고, 거주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더 높은 스트레스를 보였다. 어린이 행위음에서는 자가가 아닌 경우, 20평 미만, 희망 주거지역이 농어촌인 경우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규칙·도덕성은 아파트 배치형태가 '—'자형이고, 희망거주지역이 농어촌일 경우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

5) 근린 관련변인에 따른 스트레스는 근린생활 참여도, 단지에착심에서 상·중·하 집단별 차이를 보이며, 근린생활에 참여도가 낮은 하집단일수록 이웃과의 교제, 규칙·도덕성 문제, 프라이

버시 측면에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지에착심은 상집단일수록 규칙·도덕성, 프라이버시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근린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가족수, 수입, 평형, 근린생활 참여도, 단지에착심이며, 가족수와 평형이 작고, 근린생활참여도가 낮은 집단과, 수입과 단지에착심이 높은 집단에서 근린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근린 스트레스는 사회인구학적변인, 주거관련변인, 근린관련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수가 적은 가정형성기나 축소기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가정생활의 심리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며, 아파트 소유형태가 전세·월세·임대 등이며, 아파트의 평형이 20평 미만, 복도형일 때, 16층 이상으로 초고층일 때 더 많은 근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근린 생활에 참여도가 낮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린 스트레스 요인 중 예전에는 생활행위음 및 어린이행위음과 같은 소음에 관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나 여러 설계, 설비측면의 기술이 개선되고, 또한 현대생활에서의 의식적인 측면이 대두됨에 따라 규칙·도덕성 문제가 새로운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아파트와 같이 서로 가치관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공동생활하는 곳에서 자신이 스트레스의 가해자가 될 수도, 동시에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상황을 주지하여 주민 상호간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도덕외식의 확립이 요구된다.

둘째, 근린생활 중 반상회나 부녀회 등에 참여도가 낮을수록 근린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모임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정보전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 참여도를 높여야 하겠다.

주

- 1) 대구광역시 월성지구는 최근 1990년 이후 대한주택공사와 민간건설업들에 의해 개발된 신도시로서 공공, 민영의 다양한 아파트 유형과 평형이 공급되어 있다.
- 2) 5점 Likert척도로 조사한 결과를
 - 이웃과의 친밀도(거의매일·2~3일에 1번=상집단, 1주일에1번=중집단, 1달에 1번·거의없음=하집단)
 - 근린생활참여도(빠짐없이 참석·거의참석하는편=상집단, 보통=중집단, 자주빠짐·전혀 참석하지않음=하집단)
 - 근린만족도와 단지에착심(매우그렇다·그렇다=상집단, 보통=중집단, 그렇지않다·매우그렇지않다=하집단)으로 나누었음.
- 3) 20평형 미만은 주택공사, 20평형 이상은 민간 건설업체에서 공급한 아파트이다.

참 고 문 헌

1. 강대기·홍동식(1982), 大都市의 住居環境과 近隣關係形成에 관한 研究, 韓國社會學, 제16권
2. 고경필(1997), 주거환경 스트레스와 주거이동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제8권 2호
3. 문숙재·곽인숙(1992), 주거환경 스트레스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권 3호
4. 박남희·윤복자(1989), 아파트 내부소음에 대한 거주자 태도 및 적응행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7권 1호
5. 손세옥·최찬환(1991), 집합주택에 있어서 근린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 7권 4호
6. 심선희·강순주(1996), 초고층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환경 스트레스와 건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2권1호
7. 윤복자(1989), 근린생활을 중심으로한 아파트 거주자의 사회적 행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제5권 4호
8. 양준우(1992), 주택단지 주거환경의 거주후 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9. 조성명·강순주(1997), 서울근교 신도시, 분당지역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가치와 주거만족, 한국 주거학회지 제8권 1호
10. 차성란(1985), 가족 및 주거특성이 주거만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山内宏太郎(1995), 住生活 環境과 心理적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 주거에 관련된 근린 스트레스 척도의 구성, 주택기술정보, pp.130~163
12. 山内宏太郎(1990), 家族と住環境ストレスに關する研究(1) - 集合住宅の 家族に關する 分析, 研究紀要, Vol. 26, pp. 13~30, 白百合女子大學
13. 山内宏太郎(1992), 集合生活と近隣ストレスに關する研究, 研究紀要, Vol.28,pp.83~103, 白百合女子大學
14. Festinger(1950), social pressures in informal groups; a study of human factors in housing.
15. Whyte(1956), man and organization : three problem in human relations in Industry.